

를 그 쪽으로 갖고 있다.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론들을 위해 사용된 몇몇 공통적인 논증들이 오류임을 밝히고자 시도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한 이론이 무슨 존재론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결정해 줄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존재론을 선택해야 하는지의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확실한 조언은 인내와 실험 정신이다. 물리주의적 개념들이 얼마 만큼 현상주의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나 비록 환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물리학은 여전히 당당하게 계속 추구될 필요가 있다. 자연 과학이 어떻게 혹은 어느 정도까지 플라톤적 수학에서 독립하게 될지를 살펴보자. 그러나 수학도 탐구하고 그것의 플라톤적인 근거도 정밀 조사해 보자.

이런 다양한 탐구에 가장 알맞는 여러 개념들 중에서, 어떤 것은—현상주의의 틀—인식론적인 우월성을 주장한다. 현상주의적 개념들 안에서 보면, 물리적 대상과 수학적 대상의 존재론은 신화이다. 그렇지만 신화의 질은 상대적이다. 특히 이 경우에는 인식론적 관점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 관점은 우리의 다양한 관심과 목적들 가운데 하나에 상응하는, 다양한 관점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 경험주의의 두 가지 도그마

현대 경험주의는 두 개의 독단에 의해 많은 부분에서 결정되어 왔다. 그 중의 하나는 분석적 진리와 종합적 진리—즉 사실의 문제와는 상관 없이 의미에 근거하는 진리와 사실에 근거하는 진리—사이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믿음이다. 다른 하나의 독단은 환원주의이다. 즉 개개의 의미 있는 진술은 직접 경험을 지칭하는 용어들로 이루어진 어떤 논리적 구조물과 동치라는 믿음이다. 나는 이 두 개의 독단이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것들을 폐기함으로써 생기는 한 가지 결과는 사변적 형이상학과 자연 과학 사이에 가정되었던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결과는 실용주의로의 전환이다.

### 1. 분석성의 배경

칸트(I. Kant)가 제기한 분석적 진리와 종합적 진리의 차이는 이미

흄(D. Hume)이 제시한 관념들의 관계와 사실들의 관계간의 구분과 라이프니츠(G. Leibniz)가 제시한 이성적 진리와 사실적 진리간의 구분에서 예고되었다. 라이프니츠는 이성적 진리를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인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것은 제쳐 둔다면, 이것은 이성적 진리란 거짓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분석적 진술이 그것을 부정하면 자기 모순이 되는 진술로 정의됨을 본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사소한 설명적 가치밖에는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매우 넓은 뜻에서 이런 분석성의 정의에 필요한 자기 모순이라는 개념 자체 역시 분석성 개념과 꼭 마찬가지로 명료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두 개념은 의심스러운 동일한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21 칸트는 분석적 진술을 주어에 이미 개념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그 주어에 부가하지 않는 진술로 생각했다. 분석성에 대한 이런 정식화는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 즉 이 정식화는 주어—술어 형식의 진술에만 한정되며, 또한 은유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포함이라는 개념에 호소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칸트의 의도는 분석성 개념에 대한 그의 정의에서보다 그가 그 개념을 사용하는 데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며, 이것은 다음과 같이 다시 서술될 수 있다. 즉 한 진술이 사실과 상관없이 의미에 의해 참일 때 그 진술은 분석적이다. 이 노선을 따라, 미리 전제된 의미의 개념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의미는 명명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금성’과 ‘셋별’이라는 프레게(G. Frege)의 예와 ‘스코트’(Scott)와 ‘《웨이벌리》(Waverley)의 그 저자’라는 러셀(B. Russell)의 예는 용어들이 같은 사물을 명명하면서도 의미는 다를 수 있음을 예증한다. 의미와 명명간의 구별은 추상적 용어의 차원이라고 해서 결코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명사 ‘9’와 ‘행성들의 그 수’는 하나의 동일한 추상적 실재를 명명하지만 아마도 의미는 다르다고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되는 그 실재

1) 이 책 22~23면 참조.

의 동일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미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철문학적인 관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예들은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단칭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용어나 술어의 경우에도 상황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 단칭 용어가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실재를 명명한다고 알려진 반면, 일반 용어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일반 용어는 한 실재에 대해 참이거나 다수 각각에 대해 참이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참이 아니다.<sup>2)</sup> 일반 용어의 적용이 참이 되는 모든 실재들의 집합을 그 용어의 외연이라고 부른다. 이제 단칭 용어의 의미와 명명된 실재간의 차이점을 비교했듯이 우리는 일반 용어의 의미와 그것의 외연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용어 ‘심장을 가진 피조물’과 ‘신장을 가진 피조물’은 아마 외연은 같지만 의미는 다를 것이다.

일반 용어의 경우 의미와 외연을 혼동하는 일은 단칭 용어의 경우에서의 의미와 명명간의 혼동보다는 덜 일반적이다. 내포(혹은 의미)를 외연과 대조하는 것, 또는 변형된 어휘로 함의를 지시체와 대조하는 것은 실제로 철학에서 통상적인 일이다.

22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이란 개념은 의심할 나위 없이 현대의 내포 혹은 의미 개념의 선구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성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었고 두 다리를 갖는다는 것은 우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와 의미 이론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의미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오직 논의 그 자체를 위해서라면), 단어 ‘인간’의 의미에 합리성은 포함되어 있지만, 양측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실제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발 짐승’의 의미에는 양측성은 포함되어 있지만 합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의미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며 동시에 두 발 짐승인 실제 개체에 관해 그의 합리성은 본질적이지만 양측성은 우연적이라거나 혹은 그 역으로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

2) 이 책 23~24, 136~146면 참조.

물은 본질을 갖고 오직 언어 형식만이 의미를 갖는다. 본질이 그 지칭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단어와 결합될 때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의미 이론의 경우 눈에 띄는 문제는 그 대상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의미란 어떤 종류의 것인가? 의미가 실재이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은 아마 의미와 지칭간의 구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초기의 실패에서 유래하는 것 같다. 일단 의미 이론이 지칭 이론에서 엄격하게 분리되면, 언어 형식들간의 동의성과 진술들간의 분석성이 곧 의미 이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간단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호한 매개적 실재인 의미 그 자체는 폐기될 것이다.<sup>3)</sup>

이제 우리는 수정된 분석성의 문제에 직면한다.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인정되는 분석적 진술을 찾기란 사실 어렵지 않다. 그들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 첫번째 종류는 논리적 참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다음의 예가 전형적인 경우이다.

(1) 어느 결혼하지 않은 남자도 결혼하지 않았다.

이 예에 관련된 특징은 그것이 단지 그 상태로 참일 뿐 아니라, '남자'와 '결혼한'을 어떻게 재해석하더라도 항상 참이라는 점이다. 만일 우리가 '어느 ~도 ~이 아니다'(no), '~이 아닌'(un-), '~이 아니다'(not), '만일'(if), '~이면'(then), '그리고'(and) 등을 포함하는 논리적 불변화사의 목록을 미리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논리적 진리란 참인 진술인 동시에 그 진술의 논리적 불변화사 이외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재해석하더라도 참인 진술이다.

그러나 또 다른 두번째 종류의 분석적 진술이 있고 다음의 예가 그 전형적 경우이다.

(2) 어느 총각도 결혼하지 않았다.

3) 이 책 25면 이하, 68면 이하 참조.

이런 진술의 특징은 그것이 동의어에 동의어를 대입함으로써 논리적 진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2)는 '총각'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대입함으로써 (1)로 전환될 수 있다. 우리는 이상의 서술에서 분석성만큼이나 명료화될 필요가 있는 "동의어" 개념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두번째 종류의 분석적 진술의 특징을 적절히 규정하지 못했고, 따라서 분석성 일반의 특징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카르납(R. Carnap)은 그가 상태-기술(state-description)이라 부르는 것에 호소함으로써 분석성을 설명하는 데 공헌했다.<sup>4)</sup> 상태-기술이란 그 언어의 원자적 혹은 비복합적인 진술들에 남김없이 진리값들(truth values)을 할당한 것들을 말한다. 카르납의 가정에 의하면 그 언어의 다른 모든 진술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절들을 일반 논리적 장치들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 결과 어떤 복합 진술의 진리값이든지 각 상태-기술에 명시될 수 있는 논리 법칙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 다음 어떤 진술이 모든 상태-기술에서 참으로 나타날 때 그 진술은 분석적이라고 설명된다. 이 설명은 라이프니츠의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을 응용한 것이다. 그러나 분석성에 대한 이런 해석은 그 언어의 원자 진술들이 '존은 총각이다'와 '존은 결혼했다'와는 달리, 상호 독립적일 때에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존은 총각이다'와 '존은 결혼했다' 둘 다에 진리값 참을 할당하는 한 개의 상태-기술이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어느 총각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앞에 제안한 기준에 따라 분석적이기보다는 종합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태-기술에 의한 분석성 기준은 '총각'과 '미혼 남자'와 같은 논리 외적 동의어 쌍—'두번째 종류'의 분석적 진술을 발생시키는 유형의 동의어 쌍—을 갖지 않는 언어에서만 유효하다. 상태-기술의 기준은 기껏해야 논리적 진리의 재구성일 뿐 분석성의 재구성은 아닌 것이다.

4) R. Carnap[3], 9면 이하; Carnap [4], 70면 이하 참조.

나는 카르납이 이 점을 착각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려는 것은 아니다. 상태-기술을 가지는 그의 단순화된 모델 언어는 일차적으로 일반적인 분석성의 문제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즉 확률과 귀납의 명료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분석성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된 난점은 분석적 진술의 첫번째 종류인 논리적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의어 개념에 의존하는 두번째 종류에 있다.

## 2. 정 의

두번째 종류의 분석적 진술이 논리적 진리인 첫번째 종류의 진술로 정의에 의해서 환원된다고 말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다. 예를 들어 ‘총각’은 ‘미혼 남자’로 정의된다. 그러나 ‘총각’이 ‘미혼 남자’로 정의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했는가? 그것을 그렇게 정의한 사람은 누구이며 언제 그렇게 했는가? 우리는 최신판 사전이 호소할 것인가? 사전 편집자의 표현 구성을 법칙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전 편집자는 일종의 경험 과학자이며 그의 업무는 이전의 사실들을 기록하는 일이다. 그가 ‘총각’을 ‘미혼 남자’로 해설했다면, 그것은 그것들의 형태 사이에 동의어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그의 연구 작업에 선행해서 일반적 혹은 선호된 용법에 함축되어 있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다. 여기에서 미리 전제된 동의어 개념은 여전히 언어 행위와 관련된 용어로 명료화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관찰된 동의어에 관한 사전 편집자의 보고인 “정의”가 동의어의 근거로 채택될 수는 없다.

정의는 실제로 문헌학자들만의 독점적 활동은 아니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도 난해한 용어를 더 익숙한 어휘로 된 용어로 바꾸어 씌으로써 그것을 “정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보통 그런 정의는 문헌학자들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진행중인 설명에 선행하는 동의어 관계를

긍정하는 순전히 사전 편집적인 것이다.

25 동의어를 긍정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언어 표현이 동의어적이라고 적절히 서술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상호 관련성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상호 관련성이 무엇이든간에 보통 그것은 용법에 근거한다. 이제 선택된 동의어의 사례를 보고하는 정의는 용법에 관한 보고가 되었다.

그러나 정의 행위 중에는 기존의 동의어들을 보고하는 데 제한되지 않는 변형된 유형의 것도 있다. 내가 염두에 두는 것은 카르납이 논리적 설명(explication)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것은 철학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위이며 과학자들에게서도 보다 철학적인 경우 볼 수 있는 행위이다. 논리적 설명의 목적은 피정의항을 명백한 동의어로 바꾸어 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보충하고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그 피정의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 설명이 단지 피정의항과 정의항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동의어를 기록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 역시 기존의 다른 동의어들에 의존한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보여질 수 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모든 단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분명하고 정확한 어떤 문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논리적 설명의 목적은 다른 문맥상의 용법들도 뚜렷하게 하면서 이 선호되는 문맥상의 용법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주어진 정의가 논리적 설명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피정의항이 그것의 기존 용법의 정의항과 동의어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용법에서 대체적으로 취해진 이들 피정의항의 선호된 문맥 각각이 그 대응하는 정의항의 문맥과 동의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이 되는 두 개의 정의항들이 논리적 설명이라는 주어진 과제의 목적에 똑같이 부합하기는 하면서도 여전히 서로 동의어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선호되는 문맥에서는 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사용되지만, 그 밖의 맥락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정의항들 중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더 고수할 경우 논리적 설명 류의

정의는, 약속에 의해, 이전에 성립하지 않던 정의항과 피정의항간의 동의어 관계를 낳게 된다. 그러나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런 정의는 여전히 그것의 논리적 설명 기능을 기존의 동의어들에 빚지는 셈이다.

그러나 선행하는 동의어로 전혀 돌아갈 수 없는 극단적인 종류의 정의가 아직 남아 있다. 즉 순전히 생략을 위해 명백히 규약적으로 새로운 표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피정의항이 정의항과 동의어가 되는 이유는 단지 그 피정의항이 정의항과 동의어가 되도록 일부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의에 의해 만들어진 참으로 명료한 동의어를 갖게 된다. 모든 종류의 동의어들이 이만큼 명료하다면 좋을 것이다. 그 밖의 경우의 정의는 동의어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의존한다.

‘정의’라는 단어는 논리적이며 수학적인 글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위험스러울 정도로 믿음직스럽게 보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본문에서 벗어나 형식적 작업 안에서의 정의의 역할에 관해 평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논리적이며 수학적인 체계에서 두 개의 상호 대립적인 유형의 경제성이 추구될 수 있으며 또 그 각각은 고유의 실제적 유용성을 갖는다. 한편으로 우리는 실제적인 표현의 경제성—복잡한 관계 진술들 속에서 평이함과 간단 명료함—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경제성은 보통 많은 개념들에 대해 서로 구별되는 간결된 기호를 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우리는 문법과 어휘 안에서 경제성을 찾을 수도 있다. 우리는 최소한의 기본 개념들을 발견하려 할 것이며, 일단 서로 구별되는 기호가 기본 개념들 각각에 충당되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이상의 어떤 개념들도 단지 우리의 기본 기호들의 조합과 반복에 의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어구들이 적으면 필연적으로 논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종류의 경제성은 비실용적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실용적이다. 즉 그것은 그 언어를 구성해 주는 형식과 용어들을 최소화함으로써 언어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대단히 단순화시켜 준다.

이 두 종류의 경제성은 처음에는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모두는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가치가 있다. 그 결과 두 언어를 하나가 다른 하나의 일부가 되도록 통합시킴으로써 두 종류의 경제성을 결합하는 관습이 생겼다. 포괄 언어는 비록 문법과 어휘가 과다하기는 하지만 메시지 길이가 경제적이다. 한편 기본 기호라 불리는 부분은 문법과 어휘가 경제적이다. 전체와 부분은 번역 규칙에 의해 상호 연결되고, 그로 인해 기본 기호가 아닌 각 어구는 기본 기호로 이루어진 복합 기호와 동치가 된다. 이러한 번역 규칙들이 형식화된 체계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정의들이다. 이들은 한 언어의 부속물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의 일부인 두 언어간의 상호 관계로서 가장 잘 이해된다.

그러나 이런 상호 관계가 자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기본 기호들이 잉여 언어가 가지는 간단함과 편리함 이외의 모든 목적들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피정의항과 그 정의항간의 관계는 매 경우마다 조금 전에 언급된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한 방식의 관계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정의항이란 기존 용법의 직접적 동의어를 보존하면서 더 정밀한 기호로 피정의항을 충실히 바꾸어 쓴 것일 수 있다.<sup>5)</sup> 둘째, 논리적 설명의 정신에 따라 정의항들은 피정의항의 기존 용법들을 개선한 것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피정의항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은 창조된 기호로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 작업에서나 비형식적 작업에서나 유사하게—극단적으로 새로운 기호를 분명히 규약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선행하는 동의어 관계에 따라 정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의의 개념이 동의어와 분석성의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

5) ‘정의’의 변형된 한 중요한 뜻에 따르면, 보존된 관계는 아마 단지 지칭체의 일치라는 보다 약한 관계일 것이다(이 책 165면 참조). 그러나 이런 뜻의 정의는 동의어 문제에 관련이 없으므로 현재 맥락에서는 무시하는 편이 낫다.

으므로 더 이상 정의에 관해서 말하지 말고 동의어를 좀더 연구해 보자.

### 3. 교환 가능성

두 언어 형식이 동의어라는 것, 단지 그들이 모든 문맥 안에서 진리값의 변경 없이 서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것—라이프니츠의 용어로 진리값의 변경 없이<sup>6)</sup> 서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제안은 자세히 살펴볼 만하다. 이렇게 이해된 동의어는 모호함이 어울리는 한 그 모호함으로부터 벗어날 필요조차 없다는 점에 유의하라.

- 28 그러나 동의어 ‘총각’과 ‘미혼 남자’가 어디에서나 진리값의 변경 없이 서로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각’(bachelor)에 ‘미혼 남자’(unmarried man)를 대입했을 때 거짓이 되는 진리들은 ‘학사’(bachelor of arts)나 ‘수레국화’(bachelor’s buttons)의 도움으로 쉽게 구성될 수 있고\*, 다음 인용의 도움으로도 역시 구성될 수 있다.

‘총각’은 10개 이하의 자모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런 반례들은 아마 ‘학사’, ‘수레국화’ 및 인용어 ‘총각’을 각각 분할 가능한 단일 단어로 취급한 후, 동의어의 시금식이어야 할 진리값의 변경 없는 상호 대치 가능성이 단어 내의 부분적 발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의어에 관한 이런 설명은 다른 평가들의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더라도 실제로는 “단어”라는 선행 개념에 호소한다는 약점을 갖는다. 즉

6) C.I. Lewis [1], 373면 참조.

\* 예를들어 bachelor’s buttons is flower(수레국화는 꽃이다)는 참이지만, 여기에서 ‘bachelor’ 대신에 ‘unmarried man’을 대입시킨 unmarried man’s buttons is flower(미혼 남자의 단추는 꽃이다)는 거짓이다—옮긴이 주.

이 개념 자체를 정식화하는 일도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그렇지만 동의어 문제를 단어의 문제로 환원시켰다는 점에서 약간의 진전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단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서 이 노선을 잠시 따르기로 하자.

진리값의 변경 없는 상호 대치 가능성(단어 내의 발생은 제외한)은 동의어의 조건으로 충분히 강한 조건인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동의어가 아닌 다른 표현들도 그와 같이 대치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여전히 남는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가 동의어를 심리적 연상이나 시적인 성질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두 표현도 그런 뜻에서는 동의어일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인식적 동의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인식적 동의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탐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1절에서 분석성과 관련하여 생긴 요구로부터, 우리는 인식적 동의어에 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 거기서 요구된 종류의 동의어는 단지 동의어에다 동의어를 대입함으로써 어떤 분석적 진술이든지 논리적 진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동의어였다. 상황을 바꾸어서 분석성을 가정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익히 잘 알려진 예들을 그대로 가지고) 용어들이 인식적으로 동의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총각’과 ‘미혼 남자’가 인식적으로 동의어라는 것은,

- 29 (3) 모든 총각들이 그리고 오직 총각들만이 미혼 남자이다.

라는 진술이 분석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7)</sup>

7) 이것이 일차적이고 넓은 뜻의 인식적 동의어이다. 카르납과 루이스는 이 개념이 일단 손에 들어왔을 때 몇몇 목적에서 선호할 만한 좁은 의미의 인식적 동의어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를 제시했다(Carnap [3]), 56면 이하; Lewis [2], 83면 이하). 그러나 이런 특수한 개념 형성의 세분화는 현재의 목적과는 별개의 것이며, 여기에서 고려되고 있는 넓은 종류의 인식적 동의어와는 혼동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거꾸로 1절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인식적 동의어의 도움으로 분석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성을 미리 전제하지 않는 인식적 동의어에 관한 설명이다. 그리고 실제로 인식적 동의어에 대한 그런 독립적인 설명은 현재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것, 즉 단어 안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진리값의 변경 없는 상호 대치 가능성이다. 결국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그런 상호 대치 가능성이 인식적으로 동의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즉각 다음과 같은 종류의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장담할 수도 있다.

(4) 필연적으로 모든 총각들이 그리고 오직 총각들만이 총각들이다.

라는 진술은 ‘필연적으로’ 오직 분석적 진술에만 참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아주 좁게 해석한다고 할 경우에도 분명히 참이다. 그렇다면 ‘총각’과 ‘미혼 남자’가 진리값의 변경 없이 상호 대치 가능할 경우, (4)의 ‘총각’ 자리에 ‘미혼 남자’를 대입하여 얻은,

(5) 필연적으로 모든 총각들이 그리고 오직 총각들만이 미혼 남자이다.

라는 결과도 (4)와 마찬가지로 참이어야 한다. 그러나 (5)가 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3)이 분석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총각’과 ‘미혼 남자’는 인식적 동의어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앞의 논증에서 속임수 낚새를 풍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진리값의 변경 없는 상호 대치 가능성의 조건은 다루는 언어의 풍부성이 다양함에 따라 그 강도가 변한다. 앞의 논증은 분석적 진술에 적용될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진리를 산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사 즉 ‘필연적으로’를 포함할 만큼 충분히 풍부한 언어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사를 포함하는 언어

를 관대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가? 그 부사가 과연 뜻이 있거나 한가?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이미 ‘분석적’의 의미를 만족스럽게 이해했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논증은 단적으로 순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도식화해서 말하면 우리의 논증은 공간 내에 닫힌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진리값의 변경 없이 상호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은 적합한 측면에서 그 언어의 범위가 구체화된 특정 언어와 관련되기 전에는 무의미하다. 지금 우리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언어를 연구한다고 가정해 보자. 무한히 많은 단항 술어(예를 들어, ‘ $Fx$ ’가  $x$ 가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할 경우의 ‘ $F$ ’)와 다항 술어(예를 들어 ‘ $Gxy$ ’가  $x$ 가  $y$ 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할 경우의 ‘ $G$ ’)가 있고, 이들 대부분은 논리 외적인 주제와 관련을 갖는다. 그 언어의 나머지 부분은 논리적인 것들이다. 원자 문장은 하나 이상의 변항(‘ $x$ ’, ‘ $y$ ’ 등)이 붙는 술어 하나로 구성된다. 복합 문장은 진리 함수들(‘~이 아니다’, ‘그리고’, ‘또는’ 등)과 양화에 의해 원자 문장들로부터 구성된다.<sup>8)</sup> 결국 이들 언어는 일반적으로 기술구와 단칭 용어들이 갖는 이점까지 가질 수 있고, 이들 표현은 맥락에 따라 이미 알려진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sup>9)</sup> 집합들, 집합들의 집합들 등을 명명하는 추상 단칭 용어들까지도, 집합의 원소임을 나타내는 2항 술어를 갖는 일군의 술어를 가정할 경우 맥락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sup>10)</sup> 이런 언어는 고전 수학은 물론 과학적 논의 일반에도 적합할 수 있다. 단 이때 과학적 논의가 반사실적 조건문이나 ‘필연적으로’ 같은 양상 부사처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장치들과 관련될 경우는 제외

8) 이 책 106면 이하는 단 하나의 술어인 2항 술어 ‘ $\varepsilon$ ’이 우연히 나타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로 그런 언어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9) 이 책 18~22면, 111면 이하, 208면 이하.

10) 이 책 113면 참조.

된다.<sup>11)</sup> 이런 뜻에서 지금 이런 유형의 언어는 외연적이다. 말하자면 외연이 일치하는(즉 같은 대상들에 대해 참인) 어느 두 술어도 진리값의 변경 없이 서로 교체될 수 있다.<sup>12)</sup>

- 31 따라서 외연적 언어에서는 진리값의 변경 없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이 바라던 유형의 인식적 동의어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총각’과 ‘미혼 남자’가 한 외연적 언어에서 진리값의 변경 없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은 (3)이 참이라는 것만을 보증할 뿐이다. 여기서 ‘총각’과 ‘미혼 남자’의 외연적 일치는 ‘심장을 가진 피조물’과 ‘신장을 가진 피조물’간의 외연적 일치의 경우에서와 같은 단순히 우연한 사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미에 근거한다고 할 보장이 전혀 없다.

대부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외연적 일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동의어에 가장 근접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외연적 일치란 분석성을 1절의 방식으로 요구하는 유형의 인식적 동의어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거기서 요구하던 유형의 인식적 동의어는, ‘총각’과 ‘미혼 남자’가 동의어라는 것을 단지 (3)의 진리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아니라 (3)을 분석적이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값의 변경 없는 상호 대치 가능성을 외연적 언어와 관련하여 해석할 경우, 그것은 1절의 방식으로 분석성을 도출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인식적 동의어의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함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어떤 언어가 최근에 주목받는 내포적 부사 ‘필연적으로’나 그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 다른 요소들을 포함한다면, 그런 언어 내에서의 진리값의 변경 없는 상호 대치 가능성은 인식적 동의어의 충분 조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언어는 분석성의 개념이 이미 상당히 이해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결국 1절에서처럼 인식적 동의어로부터 분석성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먼저 인식적 동의어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아마 잘못된 접근인 것 같

11) 이런 장치에 관해서는 논문 8도 참조.

12) 이것이 W.V.O. Quine [1], \*121의 실질적 내용이다.

- 다. 대신 우리는 인식적 동의어에 호소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분석성을 설명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아주 만족스럽게 분석성으로부터 인식적 동의어를 분명히 도출해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보았듯이 ‘총각’과 ‘미혼 남자’가 인식적으로 동의어라는 것은 (3)의 분석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물론 단항 술어의 어떤 쌍에도 똑같은 설명이 해당되며, 다항 술어의 쌍에도 분명한 방식으로 같은 설명이 확장될 수 있다. 다른 구문론적 범주들 역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다. 단칭 용어들은 그들 사이에 ‘=’을 집어 넣어 만든 동일성 진술이 분석적일 때 인식적으로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다. 진술들의 경우는 그들의 쌍조건문(‘만일 ~이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으로 그들을 결합시켜 만든 결과)이 분석적일 때 인식적으로 동의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sup>13)</sup> 만약 우리가 이 절에서 이미 호소했던 “단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가정해서라도 모든 범주들을 한 가지 방식으로 정식화하려 한다면, 어느 두 언어 형식이든지 (더 이상 진리값이 아니라) 분석성의 변경 없이 (“단어들”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대치할 수 있을 때 그 두 언어 형식을 인식적 동의어라고 기술할 수 있다. 애매함이나 동음이의어의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전문적인 질문들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제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지체하지는 말자. 차라리 동의어의 문제로 되돌아가서 분석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 4. 의미론적 규칙

분석성은 처음에는 의미의 영역에 호소함으로써 가장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상세한 논의에 의하여, 의미에 대한 호소

13) ‘만일 ~이면 그리고 그 경우에만’ 그 자체는 진리 함수적인 뜻으로 의도되었다. Carnap [3], 14면 참조.



는 동의어 혹은 정의에 대한 호소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정의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종의 도깨비불임이 드러났고, 동의어는 기껏해야 분석성 자체에 대해 미리 호소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석성 문제로 되돌아왔다.

나는 진술 ‘초록 색깔을 한 모든 것은 연장되어 있다’가 분석적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면 이 예문에 관한 나의 미결정이 진정 ‘초록’이나 ‘연장된’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파악, 불완전한 이해를 드러낸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초록’이나 ‘연장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에 있다.

일상 언어에서 종합적 진술과 분석적 진술을 구분해 내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일상 언어의 모호성에 기인하며, 그 구분은 우리가 명백한 ‘의미론적’ 규칙을 갖춘 정밀한 인공 언어를 갖게 될 때 분명해질 것이라고 흔히 지적된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내가 보여주게 되겠지만 하나의 착각이다.

- 33 우리가 우려하는 분석성 개념은 진술과 언어 사이에 의도된 다음과 같은 관계이다. 즉 진술  $S$ 는 언어  $L$ 에서 분석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관계, 즉 변항 ‘ $S$ ’와 ‘ $L$ ’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느냐에 있다. 이 문제가 자연 언어에서보다 인공 언어에서 덜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 변항 ‘ $S$ ’와 ‘ $L$ ’을 지닌 ‘ $S$ 는  $L$ 에 대해 분석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변항 ‘ $L$ ’의 범위를 인공 언어에 한정한다 해도 여전히 남는다. 지금부터 이 점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

인공 언어와 의미론적 규칙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카르납의 저술들을 떠올린다. 그의 의미론적 규칙들은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나의 논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들 중 어떤 것을 구별해 내야 할 것이다. 먼저 한 인공 언어  $L_0$ 를 가정해 보자. 이  $L_0$ 의 의미론적 규칙들은  $L_0$ 의 모든 분석적 진술들을 회귀적 방법(recursion)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명백히 구체화해 주는 형식을 지닌다고 하

자. 그 규칙들은 그러그러한 진술들이 그리고 그것들만이  $L_0$ 의 분석적 진술임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그런데 이 경우의 난점은 그 규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석적’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 규칙이 분석성이라는 속성을 어떤 표현에다 부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칙이 그 표현들에 부여한 속성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한 진술  $S$ 는 ~일 때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L_0$ 에서 분석적이다’로 시작하는 규칙을 이해할 수 있기 이전에 ‘~에서 분석적’이라는 일반적 관계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 $S$ ’와 ‘ $L$ ’이 변항인 ‘ $S$ 는  $L$ 에서 분석적이다’를 이해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 대안으로 소위 규칙이라는 것을, ‘ $L_0$ 에서 분석적’이라는 새롭고 단순한 기호에 대한 규약적 정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그 기호는 ‘분석적’이란 흥미 있는 단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아무 의도 없이 ‘ $K$ ’라고 쓰는 편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혹은 아무런 목적 없이,  $L_0$ 의 진술들은 집합  $K$ ,  $M$ ,  $N$  등과 같은 집합들로 얼마든지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K$ 를  $M$ ,  $N$  등과 달리  $L_0$ 의 “분석적” 진술들의 집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34  $L_0$ 에서 분석적인 진술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말할 때, 우리는 ‘ $L_0$ 에서 분석적’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분석적’이나 ‘~에서 분석적’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 $L$ ’의 범위를 인공 언어의 영역에 제한하는 데 만족한다 해도, 애초부터 우리는 변항 ‘ $S$ ’와 ‘ $L$ ’을 지닌 ‘ $S$ 는  $L$ 에서 분석적이다’라는 문구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분석적 진술들이 참이라고 가정되었음을 알 만큼 ‘분석적인’에 의해 의도된 의미에 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두번째 형식의 의미론적 규칙으로 돌아가 보자. 그 규칙은 그러그러한 진술들이 분석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그러한 진술들이 진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뿐이다. 그러한 규칙은 ‘분석적’이라는 아직 파악되



지 못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논의를 위해 ‘참’이라는 좀더 광범위한 용어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두번째 유형의 의미론적 규칙인 진리 규칙은 그 언어의 모든 진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가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구체화되지 않는 다른 진술들과 함께 참이라고 간주되는 일정한 수의 진술들을 회기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규정할 뿐이다. 그러한 규칙은 매우 명료한 것으로 용인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연역적으로 분석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지을 수 있다. 어떤 진술이 (단지 참이 아니라) 의미론적 규칙에 의해 참이라면, 그 진술은 분석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아무런 진전도 없다. 설명되지 않은 단어 ‘분석적’에 호소하는 대신 우리는 지금 설명되지 않은 어구 ‘의미론적 규칙’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집합의 진술들이 참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모든 참인 진술들이 다 의미론적 규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진리들은 의미론적 규칙에 따라 참이라는 의미에서 “분석적”일 것이다. 의미론적 규칙이란 분명히 종이 위에 ‘의미론적 규칙’이라는 제목 아래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구별될 수 있다. 또한 그 때문에 이 제목 자체는 무의미하다.

우리는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어떤 명제가  $L_0$ 에서 분석적이라는 것은 특별히 첨부된 그러그러한 “의미론적 규칙”에 따라 참일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원래 논의되던 것(즉 ‘만일 ~일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S$ 는  $L_0$ 에서 분석적이다’)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경우에 되돌아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 $S$ 는  $L$ 에서 분석적이다’를 일반적으로 변항 ‘ $L$ ’에 의거하여 설명하려 한다면, ( $L$ 을 인공 언어로 제한하는데 동의하더라도) ‘ $L$ 의 의미론적 규칙에 따라 참’이라는 설명은 유용하지 않다. 왜냐하면 관계 용어 ‘~의 의미론적 규칙’은 적어도 ‘~에서 분석적’ 만큼이나 명료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5 의미론적 규칙의 개념을 공준(公準)의 개념과 비교하는 일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주어진 공준의 집합과 관련하여 공준이 무엇인가를 말하기는 쉽다. 즉 그것은 그 집합의 구성원인 것이다. 주어진 의미론적 규칙의 집합과 관련하여 의미론적 규칙이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다. 그러나 수학적인 혹은 그 밖의 다른 한 기법이 주어지고, 실제로 그 기법이 그 진술들의 번역이나 진리 조건에서 볼 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철저히 이해된다면, 그것의 참인 진술 중 어떤 것이 공준으로 분류되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분명 그런 물음은 오하이오의 어떤 지점들이 출발점인가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어떤 유한한(혹은 효과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무한한) 선택된 진술들이라도(아마 참인 진술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다른 진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준 집합이 된다. ‘공준’이란 단어는 탐구 행위와 관련될 경우에만 유의미하다. 즉 우리가 그 단어를 일정한 진술의 집합에 적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1년이든 순간이든 그 진술들에 대해, 그로부터 일정한 집합의 변형들을 통해 도달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까지 주목할 만하다고 보아 온 진술들과 관련해서 생각할 경우에 한정된다. 이제 의미론적 규칙의 개념을 유사하게 상대적인 정신으로 이해하는 한, 그것은 공준의 개념처럼 이해할 수 있고 의미 있다. 이때 상대적이란 어떤 자연 언어 또는 인공 언어  $L$ 에서 진술들이 진리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충분 조건에 관해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을 훈련하는 이런 저런 특정 기획에 대해 상대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L$ 의 진리들의 한 부분 집합을 어떻게 기호화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론적 규칙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만일 ‘분석적’이 ‘의미론적 규칙에 의해 참’을 의미한다면,  $L$ 의 어느 한 집합의 진리도 다른 집합의 진리를 배제할 만큼 분석적일 수 없다.<sup>14)</sup>

아마 (자연 언어와는 다른) 인공 언어  $L$ 은 일상적 의미의 언어에 대한 집합의 분명한 의미론적 규칙들 — 말하자면 전체가 하나의 순서 쌍

14) 앞 단락은 이 논문이 원래 발표되었을 때의 일부는 아니다. 이것은 논문 7의 끝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R.M. Martin에 의해 자취되었다.

36 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칙들—을 더한 것이고, 그렇다면  $L$ 의 의미론적 규칙이란 것도 그 쌍  $L$ 의 두번째 구성 요소로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항의할 만하다. 그러나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더 간단하게 인공 언어  $L$ 이 두번째 구성 요소를 분석적 진술들의 집합으로 가지는 순서 쌍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면  $L$ 의 분석적 진술들은 간단히  $L$ 의 두번째 구성 요소의 진술들로 설명된다. 아니면 아예 힘든 일을 그만두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의 고찰이 카르납과 그의 독자들에게 알려진 분석성에 관한 모든 설명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찰을 다른 형식까지 확장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다만 가끔 등장하는 다음의 첨가적인 요소가 언급되어야 한다. 즉 때때로 의미론적 규칙은 결국 일상 언어로 번역하는 규칙이다. 이 경우 그 인공 언어의 분석적 진술들은 결국 일상 언어의 구체화된 번역문들의 분석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확실히 여기에는 분석성 문제를 인공 언어적 측면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

분석성 문제에서 볼 때, 특히 의미론적 규칙을 갖춘 인공 언어라는 개념은 매혹적이다. 한 인공 언어의 분석적 진술을 결정하는 의미론적 규칙은 우리가 이미 분석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유용할 뿐이다. 그들은 그런 이해를 얻는 데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

만일 분석성—그것이 무엇이든간에—에 적합한 정신적·행태적 또는 문화적 요인들이 단순화된 모형으로 어떻게든 묘사될 수 있다면, 아마 인공적으로 단순한 종류의 가언적 언어에 호소하는 일은 분석성을 명료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분석성을 일종의 환원 불가능한 특성으로 간주하는 모형은 분석성을 해명하는 문제에 빛을 제시해 줄 것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진리가 언어와 언어 외적인 사실 모두에 근거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브루투스가 케사르를 죽였다’는 진술은 세계가 만약 몇 가지 점에서 달랐다고 하면 거짓이었을 것이다. 또한 단어 ‘죽였다’가

‘났다’의 뜻을 갖게 될 경우에도 그 진술은 거짓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진술의 진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언어적 구성 요소와 사실적 구성 요소로 분석될 수 있다고 가정하도록 유혹받는다. 이런 가정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진술에는 사실적 구성 요소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럴 듯하게 보인다. 이런 진술이 곧 분석적 진술이다. 그러나 그것의 모든 선험적인 함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석적 진술과 종합적 진술간의 경계가 간단히 그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어져야 할 구분이 있다는 주장은 경험주의자들의 비경험적인 하나의 독단이며, 일종의 형이상학적 신념의 항목이다.

## 5. 검증 이론과 환원주의

이들 비관적인 반성의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의미 개념을, 다음으로 인식적 동의어 개념을, 마지막으로 분석성 개념을 회의적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의미의 검증 이론은 어떠한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은 경험주의의 표어로 너무 확고히 자리잡혀 있어서 우리가 의미 문제 및 그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의 해결 가능한 열쇠를 그 아래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매우 비과학적인 사람들로 간주될 정도이다.

퍼스(C.S. Peirce) 이후로 문헌들 안에서 뚜렷하게 된 의미의 검증 이론이란, 한 진술의 의미는 그 진술을 확증하거나 확인시켜 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분석적 진술은 어떤 방법으로도 확증되는 한정된 경우의 진술이다.

1절에서 주장된 것처럼 우리는 실재로서의 의미에 관한 물음을 건너 뛰어서 곧장 의미의 동일성이나 동의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검증 이론이 말하는 것은 진술들이 경험적 확증 혹은 확인 방법에서 볼 때 유사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그 진술들이 동의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언어적 형식들이 인식적으로 동의어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들이 인식적으로 동의어임을 설명하는 것이다.<sup>15)</sup> 그러나 진술들간의 동의어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3절 끝부분의 고찰과 상당히 비슷한 고찰에 의해, 다른 언어적 형식들을 위한 동의어 개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단어” 개념을 가정한다면, 어느 두 형식이든지 어떤 진술에 나타난 한 형식을(“단어들” 내에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한 형식으로 바꾸어 넣음으로써 언제나 동의어인 진술을 낳게 된다면, 그 두 형식을 동의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언어적 형식 일반을 위한 동의어 개념이 주어지면, 우리는 1절에서와 같이 분석성을 동의어와 논리적 진리에 의해 정의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바로 분석성을 논리적 진리 및 진술들의 동의성에 의해 보다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진술들 이외의 다른 언어적 형식들의 동의성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진술은 단지 그것이 논리적으로 참인 진술과 동의어일 때 분석적이라고 기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증 이론이 진술의 동의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결국 분석성 개념은 구제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진술이 동의어라는 것은 경험적 확증이나 확인의 방법이 유사함을 말한다. 유사한 것으로 비교되어야 할 이들 방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해서, 확증에 기여하거나 실패하게 되는 경험과 한 진술 사이의 관계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 관계에 관한 가장 소박한 입장은 그것이 직접 보고의 일종이라는 입장이다. 이것은 극단적 환원주의이다. 즉 어떤 의미 있는 명제든지 즉각

15) 그 이론은 실제로 진술이 아닌 용어를 단위로 가지도록 정식화될 수 있다. 따라서 루이스는 용어의 의미를 “마음 속의 기준”이라고 묘사하며, “사람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실제 혹은 상상된 사물이나 상황의 경우에 문제의 그 표현을 적용하거나 적용하기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Lewis [2], 133면). 검증 의미 이론의 변천에 관한 유익한 설명은 동의어나 분석성보다는 의미 있음의 문제에 다소 집중되고 있다. C.G. Hempel 참조.

적 경험에 관한 (참이거나 거짓인) 진술로 번역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극단적 환원주의는 소위 의미의 검증 이론을 이러저러한 형태로 명백하게 예고한다. 그래서 로크와 흄은 모든 관념이 감각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유래된 관념들의 복합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론을 투크(J.H. Tooke)의 암시를 받아 의미론적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도 있다. 즉 모든 의미 있는 용어는 감각 자료의 이름이거나 그런 이름들의 복합이거나 또는 그런 복합어의 약어이다. 이렇게 진술함으로써 이 이론에는 감각 사건으로서의 감각 자료와 감각적 성질로서의 감각 자료간의 애매함이 남게 된다. 그리고 허용될 수 있는 결합 방식들도 모호하게 남게 된다. 더군다나 그 이론은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 부과하는 비판에서 불필요하고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우리는 더 그럴 듯하면서도 극단적 환원주의라는 것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완전한 진술들을 의미 있는 단위들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로서의 진술들이 감각 자료 언어로 번역될 수 있어야 하긴 하지만, 용어 대 용어로 번역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로크, 흄, 투크는 분명히 이런 수정을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미론의 중요한 방향 전환을 기다려야만 했다. 여기서 방향 전환이란 일차적인 의미의 전달자를 용어가 아니라 진술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벤담(J. Bentham)과 프레게에게서 보이는 이러한 방향 전환은 사용을 통해 정의되는 불완전 기호라는 러셀의 개념의 기저를 이룬다.<sup>16)</sup> 또 이것은 검증의 대상이 진술이므로 의미의 검증 이론에도 함축되어 있다.

이제 진술을 단위로 간주하는 극단적 환원주의는, 감각 자료 언어를 구체화하는 작업과 더불어 의미 있는 논의의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한 진술씩 감각 자료 언어로 번역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제에 착수한다. 카르납은 《세계의 논리적 구성》(Der Logische Aufbau der Welt)에서 이

16) 이 책 19면 참조.

계획에 착수했다.

카르납이 그 자신의 출발점으로 채택했던 언어는 가장 좁게 인식되는 의미의 감각 자료 언어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학의 기법과 고급 집합 이론까지 망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순수 수학의 언어 전부를 포괄한 것이었다. 그 안에 함축된 존재론(곧 그것의 변항들의 값의 영역)은 감각 사건뿐만 아니라 집합들, 집합의 집합들 등을 포괄했다. 그러한 풍부함에 주춤한 경험주의자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카르납의 출발점은 그것의 논리 외적인 부분이나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인색한 것이었다. 그가 상당히 정교하게 현대 논리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수행한 일련의 구성들 안에서, 카르납은 방대한 양의 주요 감각 개념들을 정의하는 데 성공한다. 그의 구성이 없었다면 아무도 그 개념들이 그렇게 빈약한 바탕 위에서 정의될 수 있으리라고 감히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과학이 직접적 경험 용어로 환원 가능함을 주장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환원을 실행하는 데 중대한 발걸음을 옮긴 첫번째 경험주의자였다.

40 만약 카르납의 출발점이 만족스러웠다면, 그의 구성은 그 자신이 창조했던 것처럼 아직 전체 프로그램의 한 단편에 불과했을 것이다. 심지어 물리적 세계에 관한 가장 단순한 진술의 구성조차 개략적인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이 주제에 관한 카르납의 제안은 그것이 개략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시사적이다. 그는 시공적인 순간-점들을 실수들의 사중수로 설명했고, 감각 성질들을 일정한 규범에 따라 순간-점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충 요약하면, 그 계획은 우리들의 경험과 양립 가능한 가장 느슨한 세계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성질들을 순간-점들에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위의 최소 원리는 경험으로부터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데서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카르납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그의 방식이 단지 개략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원리적인 면에서도 환원에까지는 미치지 못함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의 규범에 따르면, '성질  $q$ 는 순간-

점  $x; y; z; t$ 에 있다'는 형식의 진술은 일정한 전반적 특징을 극대화하거나 극소화하는 방식으로 진리값이 할당될 것이고, 경험이 증가됨에 따라 그 진리값은 같은 정신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정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실제로 과학이 하는 일에 관한 좋은(확실히 정교하게 단순화시킨) 도식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질  $q$ 가  $x; y; z; t$ 에 있다'는 형식의 진술이 어떻게 해서 카르납의 감각 자료 및 논리의 기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못하며, 최소한의 윤곽조차도 제공하지 못한다. '~에 있다'라는 연결사는 정의되지 않은 채 첨가된 연결사로 남아 있으며,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 규범들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제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카르납은 이 점을 뒤에 가서 인정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의 후기 저작들에서, 그는 물리적 세계에 관한 진술들이 직접 경험에 관한 진술로 번역될 수 있다는 개념 전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형태의 경험주의는 이미 오래 전에 카르납의 철학에 등장하지 않았다.

41 그러나 환원주의의 독단은 더 세련되고 섬세한 형태로 경험주의자들의 사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관념은 각 진술에 혹은 각 종합적 진술에 가능한 감각 사건들의 고유 영역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중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지 그 진술의 진리에 그럴 듯함을 더해 줄 것이고, 또한 각 진술에 가능한 감각 사건들의 다른 고유 영역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인해 그 진술의 그럴 듯함이 감소될 것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다. 물론 이런 관념은 의미의 검증 이론에서는 절대적이다.

환원주의의 독단은 진술이 그와 같은 류의 진술들로부터 고립되어도 결국 확증되거나 확인될 수 있다는 가정에 부지하고 있다. 나의 반대 제안은 본질적으로 카르납이 《세계의 논리적 구성》에서 물리적 세계에 관해 제시한 이론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 외적 세계에 관한 우리의 진술들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총체적 전체로서만 감각 경험의 범정에

선다는 것이다.<sup>17)</sup>

환원주의의 독단은 그것의 약화된 형태에서조차 또 다른 독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분석적인 것과 종합적인 것간에 간격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의미의 검증 이론을 통해 후자의 문제로부터 전자의 문제로 이끌려 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더 직접적으로 앞의 독단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뒤의 독단을 떠받치고 있다. 즉 진술의 확증이나 확인에 관해 말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 확증하는 것이 무위인 어떤 극한적인 종류의 진술을 말하는 것 역시 확증이 무위라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유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바로 그런 진술이 분석적이다.

이 두 독단은 사실상 그 근원이 같다. 우리는 앞에서 일반적으로 진술의 진리가 분명히 언어와 언어 외적인 사실 모두에 의존한다는 것을 고찰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상황에 잇따라서 진술의 진리가 언어적 구성 요소와 사실적 구성 요소로 어떻게든 분석될 수 있다는 느낌이 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동반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만약 우리가 경험주의자라면, 사실적 구성 요소는 마땅히 확증 가능한 경험의 영역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되는 것이 언어적 요소뿐인 극단적인 경우에서 참인 진술은 분석적이다. 그러나 내가 바라기는, 분석과 종합의 구별이 그런 직선적인 구획에 대해서 얼마나 완강히 저항하였는지 이제 우리가 느꼈으면 한다. 또한 나는 미리 조작된 항아리 속의 흰 공과 검은 공의 예들과는 달리, 종합적 진술의 경험적 확증에 관한 어떤 명백한 이론에 도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느꼈다. 현재 나의 제안은 어떤 개별 진술에서든지 언어적 구성 요소와 사실적 구성 요소에 관해 말하는 일이 무의미하며, 또한 이것이 많은 무의미함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학은 언어와 경험에 이중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성은 개별적으로 취해진 과학적 진

17) 이런 이론은 P. Duhem, 303~328면에 의해 잘 논증되었다. 또는 A. Lowinger, 132~140면 참조.

술로는 의미 있게 추적될 수 없다.

사용되는 기호를 정의하려는 생각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로크나 흄의 불가능한 용어 대 용어 경험주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벤담에게는 용어보다는 진술이 경험주의적 비판에 대해 해명 가능한 단위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주장하는 바는 진술을 단위로 취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너무 세밀하게 금을 그은 것이라는 것이다. 경험적 의미의 단위는 과학 전체이다.

## 6. 도그마 없는 경험론

가장 인과적인 지리와 역사의 문제로부터 원자 물리학이나 심지어 순수 수학과 논리학의 가장 심오한 법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소위 지식 또는 믿음들의 총체는 오직 그 언저리에서만 경험과 부딪치는 인공적 제조물이다. 바꾸어서 표현하면, 총체 과학이란 경험이 그 경계 조건으로 되는 힘의 장(場)과 같다. 외곽에서 일어나는 경험과의 갈등은 장 내부에서 재정돈된다. 진리값은 우리의 몇몇 진술들에 재할당되어야 한다. 몇몇 진술의 재평가는 진술들의 논리적 상호 관련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른 진술들의 재평가를 귀결한다. 논리적 법칙이란 역으로 단순히 그 체계의 어떤 상위 진술이고, 그 장의 어떤 상위 요소일 뿐이다. 하나의 진술을 재평가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다른 진술들도 재평가해야 하는데, 아마 이 진술들은 처음 진술과 논리적으로 연관되는 진술이거나 논리적 연관 자체에 관한 진술일 것이다. 그러나 전체 장은 그것의 주변 조건들인 경험에 의해 불충분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반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진술들이 재평가되어야 할지에 관해서는 상당한 선택의 폭이 있다. 균형 있는 고려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체 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별 경험들도 그 장 내에 속해 있는 어떤 개별 진술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 견해가 옳다면 개별 진술의 경험적 내용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도된 것이다. 특히 그것이 그 장의 경험적 외곽으로부터 아주 동떨어져 있는 진술인 경우라면 더욱 오도된 것이다. 더욱이 경험에 근거하여 우연히 성립하는 종합적 진술과 어느 경우이나 성립하는 분석적 진술간의 경계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 어떤 진술이든지 우리가 체계 내의 여러 곳을 충분히 철저하게 조정한다면 경우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주변부에 아주 가까이 있는 진술까지도 완강히 저항하는 경험에 직면하였을 때, 환각을 이유로 내세우거나 아니면 논리 법칙이라 불리는 일정한 종류의 진술을 수정하여 참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더구나 거꾸로 말한다면, 어떤 진술도 수정에서 면제되어 있는 것은 없다. 논리적 법칙인 배중률의 수정조차도 양자 역학을 단순화하는 수단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면 이런 변환은 케플러가 프톨레마이오스를, 혹은 아인슈타인이 뉴턴을, 혹은 다윈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능가하게 해준 변환과 원리상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생함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감각적 주변부로부터 떨어져 있는 각기 다른 거리를 통해 이야기해 왔다. 이제는 이 개념을 은유 없이 명료하게 해보려 한다. 어떤 진술들은 물리적 대상에 관한 것이고 감각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각 경험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도 선택적인 방식으로 어떤 진술은 어떤 경험에, 다른 진술들은 다른 경험들에 밀접히 관계된 것 같다. 특정 경험에 특별히 밀접하게 관계된 그런 진술들을, 나는 주변부에 가까이 있다고 묘사한다. 그러나 내가 “밀접히 관계되어 있음”이란 이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완강히 저항하는 경험에 직면해서 한 진술을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할 경우, 그것은 우리 선택의 상대적 그럴 듯함을 반영하는 느슨한 연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엘름가에 벽돌 집이 있다는 바로 그 진술을 같은 주제에 관해 그에 관련된 진술들과 함께 재평가함으로써, 분명히 우리의 체계를 조정하게 될 완강한 경험들을 상상할 수 있다. 우리는 켄타우로스가 없

다는 바로 그 진술을 동종의 진술들과 더불어 재평가함으로써, 우리의 체계를 조정하게 될 완강한 경험들도 상상할 수 있다. 완강히 저항하는 경험은 전체 체계의 서로 다른 선택 가능한 부분들 내에서 대안이 되는 서로 다른 재평가들 중 어느 것에 의해서도 조정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상상한 예들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체 체계를 혼란시키지 않으려는 자연적인 경향으로 인해, 우리는 수정의 초점을 벽돌 집과 켄타우로스에 관한 이들 특수한 진술들에 맞추어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진술들은 물리학이나 논리학이나 존재론의 고도로 이론적인 진술보다는 더 분명한 경험적 지칭체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도로 이론적인 진술들은 상대적으로 전체 조직망에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감각 자료와의 우선적 연관성으로 인해 간섭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의미할 뿐이다.

나는 한 사람의 경험주의자로서 과학의 개념적 틀을 궁극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미래의 경험을 예측하는 도구라고 줄곧 생각해 왔다. 물리적 대상이란 편리한 매개물로서 개념적으로 상황에 맞게 도입된다. 이것들은 경험에 의한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호메로스의 신들에 비견되는 환원 불가능한 설정물<sup>18)</sup>들이다. 나는 비전문적인 물리학자로서 물리적 대상들은 믿고 호메로스의 신들은 믿지 않는다. 또한 나는 그와 다르게 믿는 것을 과학적 오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물리적 대상과 신들은 정도만 다르지 종류는 다르지 않다. 두 종류의 실제들 모두는 오직 문화적 설정물으로서 우리의 개념 작용 내에 들어온다. 물리적 대상의 신화는 경험의 흐름을 다루기 쉬운 구조로 파악하는 장치로서 다른 신화들보다 더 효과적임을 증명해 왔다는 점에서 다른 대부분의 것들에 비해 인식론적으로 더 우월하다.

설정물은 거시적 물리 대상에 그치지 않는다. 원자적 차원의 대상들은 거시적 대상에 대한 법칙들과 최종적으로는 경험의 법칙들을 더 단

18) 이 책 31면 이하 참조.

45 순하고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또한 우리는 거시적 사물들을 각각 자료에 의해 정의하는 일 이상으로 원자적 실재들 및 하부 원자적 실재들을 거시적 실재들에 의해 완전하게 정의하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할 필요가 없다. 과학은 상식의 연장이며, 이론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존재론을 부풀리는 상식적인 조치를 계속한다.

크고 작은 물리적 대상들이 유일한 설정물들은 아니다. 힘이 또 하나의 예이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날 에너지와 질료의 구분이 진부하다는 말을 듣는다. 더 나아가서 수학의 본질을 이루는 추상적 실재들—결국 집합 및 집합의 집합 등—도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설정물에 지나지 않는다. 인식론적으로 이것들은 물리적 대상이나 신들과 같은 기초 위에 있는 신화들이며, 각각 경험에 대한 처리의 축진도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더 낮지도 못하지도 않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괄하는 산술학은 유리수 산술학에 의해 불충분하게 결정되기는 하지만, 더 유연하고 편리하다. 그리고 그것은 유리수의 산술학을 들쭉날쭉한 혹은 임의적인 일부분으로서 포괄한다.<sup>19)</sup> 수학, 자연 과학, 인문 과학 등 모든 과학이 마찬가지로이지만 경험에 의해 더 극단적으로 불충분하게 결정된다. 그 체계의 언저리는 직접 경험과 맞닿도록 유지되어야 하지만, 온갖 정교한 신화와 허구를 가진 나머지 부분은 법칙의 단순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존재론적 물음은 자연 과학의 물음과 같다.<sup>20)</sup> 집합을 실재라고 할 수 있을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라. 내가 다른 곳에서 주장했듯이<sup>21)</sup> 이는 곧 집합을 값으로 취하는 변항에 대해 양화해도 될지의 문제이다. 그런데 카르납은 이것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을 위해 편리한 언어 형식, 편리한 개념적 구조 또는 틀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Carnap [6]). 이 점에는 나도 동의한다. 단 과학적 가설 일

19) 이 책 32면 참조.

20) E. Meyerson, "존재론은 과학 그 자체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을 수 없다", 439면.

21) 이 책 26면 이하, 131면 이하 참조.

46 반에 대해서도 같은 점이 인정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납은 그가 분석과 종합의 절대적 구분을 가정할 경우에만 존재론적 물음들과 과학적 가설들에 대한 이중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Carnap [6], 32면 각주). 그러나 이는 내가 거부하는 구분이란 점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sup>22)</sup>

집합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편리한 개념들에 관한 물음에 더 가까운 것 같다. 반면에 켄타우로스나 엘름가의 벽돌 집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의 물음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 차이가 정도의 차이일 뿐이며, 그것은 모호한 실용적 경향에 의존하므로 완강히 저항하는 어떤 특정 경험을 조정할 경우 과학의 섬유 조직 중 한 가닥을 다른 가닥에 우선하여 수정하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한 선택에는 보수주의도 고려되며 단순성의 문제도 계산된다.

카르납, 루이스 및 그 밖의 사람들은 언어적 형식들과 과학적 틀들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그들의 실용주의는 분석과 종합간의 가상된 경계 지점에서 멈추고 만다. 그러한 경계를 거부함으로써 나는 보다 철저한 실용주의를 신봉한다. 각 사람에게는 과학적 유산과 함께 계속되는 감각적 자극의 공세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과학적 유산을 계속적인 감각적 자극들에 맞도록 수정할 때 그를 인도하는 고려 사항은 합리성과 실용성이다.

22) 이 구분에 대한 보다 깊은 우려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은 White [2]를 참조.